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2명, 공약 발표 나서

# 이남호 “교육권역별 거점고 10개 만들 것”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 전역에서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권역별 거점고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교육 생태계 재건과 교육 상황 평준화를 목표로 한 '전북 교육 대전환 3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기조와 교육부의 '지역명품학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북 어디에서나 상산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을 막고 학령인구 반등을 이끌기 위해 상산고 교육 수준의 교육권역별 거점고 10개를 중심으로 전북 교육 생태계를 전면 재건하겠다"며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전북 어디에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상향 평준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은 전주권, 군산·익산권, 서남권, 동남권, 동부산악권 등 6대 교육권역을 중심으로 거점고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각 권역의 일반고 가운데 교육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집중 지원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거점고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전국 단위 선발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교육 생태계 재건과 교육 상황 평준화를 목표로 한 '전북 교육 대전환 3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 전북 교육 대전환 마스터플랜 제시 “좋은 교육 때문에 전북 찾는 구조 조성”

을 병행해 다른 지역 학생들의 유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재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당 최대 500여 원을 지원해 5년간 전국 100개 학교를 육성할 계획인데, 전북이 10개 학교를 유치할 경우 최대 5,000여 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예비후보는 거점고와 지역명품학교 사업을 연계해 지속적·통합 지원, 첨단 특화 교실 설치, 복합 문화공간 조성, 자기주도형 교육 시스

템 구축,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 대전환 3대 마스터플랜은 △교육권역별 거점고 중심 일반고 업그레이드 △교육부 지역명품학교 10개 유치 △전환사업 중심 특성화고 혁신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이 예비후보는 "좋은 학교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좋은 교육 때문에 전북을 찾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북 어디에서 태어나더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 천호성 “학생 1인당 독서 300권 프로젝트”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12년 동안 학생 1인당 300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초·중·고 12년 동안...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사고하고 타인 공감능력 더욱 중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초·중·고 12년 동안 학생 1인당 300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 300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사고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고력과 표현력, 공감 능력,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독서 300권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에서 한 달 2권씩 6년간 150권, 중학

교에서 한 달 3권씩 3년간 100권, 고등학교에서 두 달에 3권씩 3년간 50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독서 권장 수준을 넘어 초·중·고 12년 동안 이어지는 성장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예비후보는 독서교육을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빠른 답을 제공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며 "독서는 질문하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를 책 읽는 공간으로 조성 △모든 교과가 함께하는 독서 수업 확대 △권중 경쟁이 아닌 깊이 있는 독서 문화 정착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 구축 △교사의 독서 지도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침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독서 운영, 교과 연계 독서 수업 확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주제 탐구 독서 프로젝트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년별 권장 도서를 체계화하고 독서 기록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도입해 과정 중심 독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 학교도서관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자도서관과 오디오북 지원 확대, 저소득 가정 독서 비우려 지원 등도 추진한다.

천 예비후보는 "독서를 통해 문해력이 향상되면 학력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비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독서 기반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서를 과제가 아닌 문화로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찾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한 아이가 3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300개의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국립군산대, AI 실전 해커톤 'AIX-Boost 프로그램' 성료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는 지난 9일 대학 구성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실전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위해 운영한 2025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KSN AIX-Boost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의 AIX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전공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AI 활용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캠퍼스 생활 개선, 행정 효율화, 지역 연계 콘텐츠 개발,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토목공학과 김인호 교수팀(김인호·황경록·박의찬)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개 팀이 우수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산=김만호 기자

## 전북교육클러스터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교육클러스터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역량 강화 설명회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11일부터 30일까지 도교육청 각 부서가 참여하는 '전북교육클러스터 상담역량 강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콜센터에서 각 부서에 요청한 업무 설명 사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서별 주요 정책 등을 공유해 상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오상근 기자

##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정부 인증

우석대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 호남권 대학 '유일'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놀이심리재활학과(주임 교수 장진희, 사진)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5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유효하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우석대학교 놀이심리재활학과는 놀이심리재활 영역에서 호남권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을 받았다.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 인증은 정부 고시에 따른 지역 인증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학교는 교육과정 구성과 실

습 환경, 관련 교과목 운영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석대학교 놀이심리재활학과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정서 발달과 문제 행동 예방을 위해 생태학적 접근을 적용하고, 가족 참여 중심의 영유아 특수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재활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장진희 주임교수는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로 공식 인정받은 것은 학과의 교육 체계와 실습 요건이 정부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해 발달재활 서비스 분야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전주대, 농생명 특성화 기반 AX 융합연구 추진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농생명·식품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농생명 AX(AI Transformation)' 융합연구를 농생명융합연구소로 중심으로 추진하며, 전북 지역의 주요 연구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농생명·식품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 분야로 설정하고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을 교육과 연구의 핵심 축으로 삼아 교육과정 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전략 속에서 농생명융합연구소는 농생명 분야와 인

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선형적으로 추진하며 농생명 AX 기반 연구 환경을 구축해 왔다.

또한 교내 농생명융합기술원에 구축된 분석 장비를 활용해 농생명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의 운영하는 등 농생명 AX 융합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전주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치한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X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국가 AI 전환을 주도할 도메인 기반의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통폐합 학교에 남아 있는 교육유물 수집

전북교육청, 총 5개 학교서 교육자료 196건 등 이관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교육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해 보존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3월 1일자로 통폐합된 학교에 남아 있는 교육유물을 조사·수집한 결과, 총 5개 학교에서 교육자료 196건 445점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폐합 과정에서 산재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교육유물을 현장에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관된 자료는 향후 전시와 교육,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유물을 이관한 학교는 군산 선유도중학교, 부안 상서초등학교, 남원 금지동초등학교, 무주 부당초등학교,



1950년대 사용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 지원 교과서.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무풍고등학교 등 5곳이다.

수집된 자료는 학교 비품과 학습용구, 학교 기록물 등 학교 현장의 역사와 교육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각 학교의 교육문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사까지 담고 있어 교육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오상근 기자

대표적인 수집 유물로는 일제강점기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음악 교과용 '심상소학환기' 레코드판과 1960~70년대 학교에서 사용된 등사기와 등사판, 1950년대 사용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 지원 교과서 등이 포함됐다.

최근 교육 분야 기록관리 정책은 학교와 기관에 분산된 기록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정리·이관해 교육과 연구, 전시 지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학교 자료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과정,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 시대별 교육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육사 자료로 평가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수집한 교육유물을 분류와 정리, 목록화 과정을 거쳐 보존 가치를 검토한 뒤 전북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돕는다... 전북교육청, 관계조정지원단 확대

작년 52명서 올해 94명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올해 초·중·고 전 학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조정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숙려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조정지원단 규모를 지난해 52명에서 올해 94명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관계조정지원단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히 개입해 피·가해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1~3학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계회복 숙려제가 올해부터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관계조정지원단도 함께 늘어났다.

지원단은 상담 전문가와 퇴직 교원, 퇴직 경찰 등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험에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조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이수하고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관계조정지원단은 151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정해 이 가운데 127건을 합의로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은 올해 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한편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10일 전주 치명자신상치 평화의전당에서 관계조정지원단 위촉식을 열고 올해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원단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갈등과 상처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